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

No. 22

2022. 6.1. ~ 6. 30.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 북한 연구자들과 국내 북한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 펠로우십 프로그램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학술 프로그램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특별 강연, 남북 분단 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 세미나, 전담/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 및 학회 연계 학술행사 등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대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펠로우 특강 세미나



일 시: 2022년 6월 2일 (목) 14:00~15:0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주 제: 김정은 정권 10년의 북한 외교정책 평가

강 연 자: 스콧 스나이더 (Scott A.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주요내용:**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는 김정은 집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마중 갈등의 심화 및 코로나19의 지속 등 불확실한 국제사회 정세 속에서 한반도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펠로우 연구발표회



일 시: 2022년 6월 28일 (화) 14:00~16:0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주요내용: 펠로우들의 개별 연구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크리스토퍼 그린 펠로우는 “현대 북한의 제도적 변화의 맥락에서 거래의 사회적 배태성을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요시노 타이치로 펠로우는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과제: 남북 통일시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펠로우의 발표에 대해 발표회 참석자들의 논평 후 토론을 이어나갔다.

## 워크숍



일 시: 2022년 6월 29일 (수) ~ 6월 30일 (목)

장 소: 경상북도 안동 일대

참가자: 펠로우 및 펠로우십 수료자 7명, 연구소장 및 교수진, 관계자 외 5명(총 12인)

주요내용: 펠로우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및 수료자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동 일대를 방문하였다. 한반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 봉정사, 병산서원을 방문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이후 북한경제사회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를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을 공모·지원하여 각 나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 연구자들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참신한 대안 및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토론회, 공동세미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자 간담회



일 시: 2022년 6월 7일 (화) 11:30~12:3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주요내용: 샤론 스콰서니(Sharon Squassoni)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소내 구성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제7차 핵실험 관련 전망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등 최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 교류하고, 연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알림 사항

#### 1. 신규 Fellow 연수 시작

허만트 듀베이(DUBEY, Hemant)와 마농 (Manon Prud'homme)이 2022년 6월부터 펠로우 초빙연구위원으로서 연구를 시작했다. 허만트 듀베이 펠로우는 ‘한국정치문화에서 북한과 통일의 역할’, 마농 펠로우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2. Fellow별 주요 연구활동 사항

- 1) 피터 워드(Peter Ward),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 펠로우가 비엔나대에서 주최한 ‘북한학의 미래와 제도화 문제’ 워크숍에 참석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워크숍에서 두 펠로우는 4개의 세션에서 워크숍 참석자들과 북한학의 정의, 방법론 등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했다.

- 2) 모틴 딜런 (Motin Dylan) 펠로우 수료자가 6월 8일 *Irish Studies in International Affairs*(발행: Royal Irish Academy)에 ‘Not in My Backyard, But in Yours: Containment Realism, Restraint Realism and China-US Competition’란 주제로 아티클을 게재했다.
  - 3) 에바 모틸리스크 (Ewa Motylinska) 펠로우 수료자의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A Conflict Transformation Feasibility Study’ 논문이 6월 20일 *Korea Europe Review*(발행: Center für Digitale Systeme (CeDiS))에 게재되었다.
-